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과정에 있어서의 성차에 관한 연구

The Examination of gender differences in the proces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창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아동가족학과
전임강사 金恩敬

Dep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Eunkyung Kim

〈목 차〉

- | | |
|----------------|---------------|
| I. 서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
| I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assess gender differences in the processes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This study revealed gender differences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The fit indices suggest that the hypothesized model fit better for the female sample. Parental divorce, marital quality and marital commitment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rital instability for both males and females. In addition, the path between parental socioeconomic status and mate selection risk factors and the path between barriers and marital commitment were strong for both genders. Parental divorce was a strong predictor of marital quality for women only. While the path between age difference and marital quality for females was strong, the same association disappeared for their male counterparts.

I. 서 론

1980년대 미국의 경우에 있어서는 첫번째 혼인의 약 50%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Norton & Mooreman, 1987). 높은 이혼률은 가족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변화를 일으킨다. 이혼의 중요한 결과는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것으로 매년 1,100만명 이상의 아동들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Kunz, 1991).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단기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루어졌으며,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이나 그 영향에 미치는 자녀의 성과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들은 제한적이며, 그 결과가 상이한 실정이다. 아들이 딸에 비해 부모의 이혼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주장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주장되어져 왔고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졌으나(Demo & Acock, 1988; Kudek, 1993; Zaslow, 1989) 최근의 연구는 상이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Amato와 Keith(1991)는 부모의 이혼이 성인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meta-analysis를 통해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성별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첫째,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였을 경우 여성보다는 남성이 편부모 가정을 이룰 위험성이 더 높다고 한다. 둘째, 부모의 이혼은 아들보다는 딸의 학력과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Glenn과 Kramer(1987)는 부모의 이혼은 다른 어떤 인종-성별 집단보다도 백인 여성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했다. 즉,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 중 이혼이나 별거를 한 확률은 백인 여성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백인남성, 흑인남성, 그리고 흑인여성의 순이었다. Glenn과 Shelton(1983)도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할 확률이 28.9%가 높는데 반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반해 이혼이나 별거를 할 확률이 59.3%나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의 이혼이나 별거 확률이

높은 것은 그들이 자신의 아내로서의 역할을 다른 역할에 비해 덜 중요시 여긴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에서도 보여지고 있다(Kulka & Weingarten, 1979).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의 성별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고 있으나 부모의 이혼에 어느 성이 더 영향을 미치는지는 학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어떤 과정을 통해 자녀의 결혼불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밝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의 성별이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인과관계 개념모델

본 연구에서는 Kim(1994)에 의해 개발된 결혼불안정성의 이론적 인과관계 개념 모델을 연구의 기본 모델로 사용한다. 이 이론적모델은 Levinger의 교환이론을 기본으로 한 Edwards와 Saunders(1981)의 사회 심리학적 모델에 세대간의 전이관점을 결합하고 결혼 전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포함하여 개발되었다.

교환이론을 바탕으로 한 Levinger의 이론은 이혼이 결혼에 있어서 부부상호간의 결합성(보상)뿐만 아니라 결혼해체에 대한 방해와 결혼에 대한 대안간의 상호작용에 기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결혼의 매력적인 요인은 남편의 수입, 높은 학력, 애정, 사회적 지위 등을 포함하며, 결혼해체의 방해요인은 교회출석여부나 사회로부터의 압력 등을 들 수 있고, 결혼에 대한 대안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자의 존재, 아내의 수입 등을 들 수 있다(Lewis & Spanier, 1982). Levinger에 의하면 결혼에 대한 매력요인(보상)이 감소하고 방해요인이 점차 약해지고 결혼에 대한 대안이 존재할 때 개인의 결혼 해체율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결혼해체과정에서 배우자의 결혼 전 배경을 고려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즉, 똑같은 방해요인과 대안을 가지고 어떤 결혼은 별거나 이혼으로 끝나고 어떤 결혼은 그대로 유

지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배우자간의 결혼 전의 배경을 고려한 세대간의 전이관점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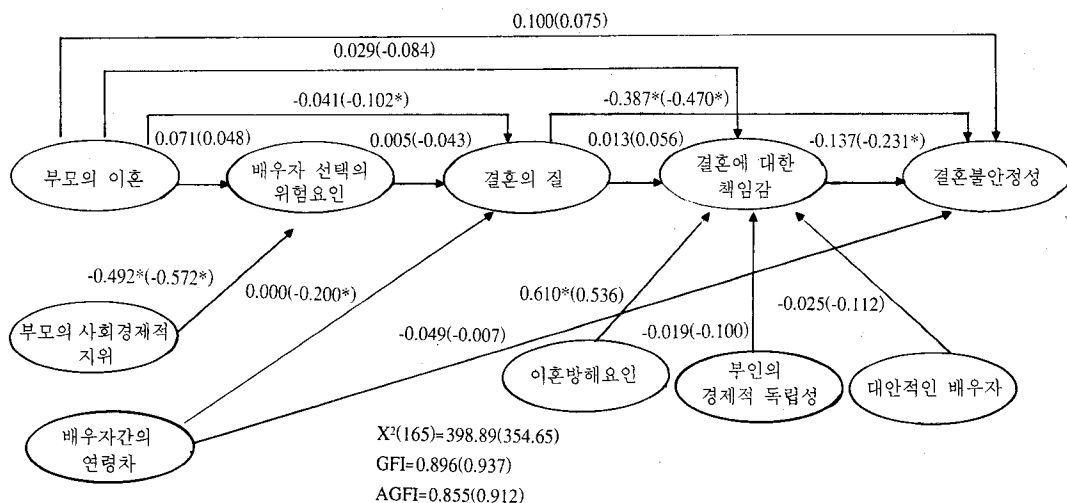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관점은 세가지 차원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다. 첫째,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이혼에 대해 좀 더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설명은 Mueller와 Pope(1977)에 의해 제안된 것으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이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이 훨씬 높기 때문에 결혼 불안정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혼한 자녀의 경우 부모의 관심과 감독이 덜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특히, 여자들의 경우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거나, 결혼을 할 때에 이미 임신을 한 상태거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남자와 결혼할 경향이 높다는 것이다. 세 번째 설명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은 적절한 배우자 역할의 role-model이 없어서 결혼 불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Edwards와 Saunders의 모델은 8개의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배우자간의 결혼 전 배경의 이질성, 방해요인과 대안이 외인성 변인이며, 배우자간의 결혼 전 적응도, 배우자간의 일치도, 대안의 비교수준

(comparison level of alternatives)와 책임감이 내인성 변인으로 사용되어 졌고 결혼 해체의 결정이 이 모델의 결과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Edwards와 Saunders의 모델은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를 위해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결혼 불안정성의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에 적절하게 수정하여 부모의 이혼이 성인자녀의 결혼 불안정성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성인자녀의 결혼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변인들간의 인과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된 이론적인 인과관계 개념 모델 <그림 1>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은 6개의 외인성(exogenous) 변인 - 부모의 이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배우자간의 연령차, 이혼방해요인, 부인의 경제적 독립성, 대안적인 배우자 - 와 네개의 내인성(endogeneous) 변인 -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 결혼의 질, 결혼에 대한 책임감, 결혼불안정성 - 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변인들은 잠재변인으로서 한 개 이상의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어져 있다.

<그림 1> 성차에 따른 결혼불안정성의 이론적 인과관계 개념모델



주: 괄호 밖의 숫자는 남성, 괄호 안의 숫자는 여성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이다.

2. 결혼불안정성의 개념

결혼 불안정성 연구에 있어서의 어려움 중에 하나는 결혼 불안정성의 개념에 대한 확실하고 통일되어진 정의가 없다는 것이다. 결혼 불안정성은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결혼의 해체, 이혼, 낮은 결혼의 질 등의 개념과 혼용되어져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Booth와 그의 동료들(1985)에 의해 사용되어진 "이혼 그 자체와는 구분 되어지는 개념으로 이혼이나 별거를 통해서 결혼을 해체하려는 경향"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선행 연구 고찰

1) 부모의 이혼이 미치는 영향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은 자녀들의 배우자 선택의 위험 요인, 결혼의 질, 결혼에 대한 책임감, 결혼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ueller와 Pope(1977)는 배우자 선택의 위험 요인들 - 결혼시의 나이, 결혼시의 학력, 결혼시 남자배우자의 직업, 혼전 임신 - 이 부모세대에서 자녀세대로 결혼 불안정성을 전이 시키는 매개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1930년부터 1990년까지의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의 분석을 통해 Kunz(1991)는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배우자 선택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McLanahan과 Bumpass(1988)도 15세부터 44세에 이르는 7,969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거나, 어린 나이에 아이를 가지거나,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거나, 이혼을 하는 경향이 높다고 밝혔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의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결혼 불안정성, 결혼에 있어서의 의사 불일치,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문제행동과 긍정적이면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oth & Edwards, 1989). 즉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자녀의 부부간의 불일치의 정도가 높고, 결혼에 있어서 문제가 더 많

은 것으로 나타났으며(Amato & Booth, 1991b), 배우자로서 자신이 적절치 못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ulka & Weingarten, 1979).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결혼에 대한 책임감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은 결혼 자체를 꺼리지는 않지만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낮으며(Glenn & Kramer, 1987), 이혼을 불만족스러운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써 쉽게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Kunz, 1991). Kulka와 Weingarten(1979)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남성들은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이혼을 문제가 있는 결혼에 대한 최선의 대안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덜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행복한 결혼생활을 한 부모를 둔 사람이나 보통의 결혼생활을 한 부모를 가진 사람,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혼은 하지 않은 부모를 둔 사람들에 비해 결혼 불안정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Amato & Booth, 1991b). Keith와 Finlay(1988)는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난 여성들은 이혼을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을 한 가정에서 자라난 남성들은 아예 결혼 자체를 할 확률이 낮으며, 이혼을 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았을 경우에만 이혼을 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선행 연구들은 일관되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자신들의 결혼을 해체하려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Bumpass & Sweet, 1972; Glenn & Kramer, 1987; Mueller & Pope, 1977; Pope & Mueller, 1976).

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자녀의 배우자 선택 위험 요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들의 학력과 결혼 연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eith & Finlay, 1988). 부모의 이혼여부에 상관없이 중상층 이상의 자녀들의 경우 평균 이상의 학력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모의 사회경제적 변인 중에서도 특히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영향을 미쳤다.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자녀들, 특히 소녀들은 결혼을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도피 수단으로 여기며 결혼을 통해 성인으로서의 자아감을 획득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으로 보여진다(Rubin, 1976).

3) 배우자 간의 연령차가 결혼의 질과 결혼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선행 연구들은 배우자간의 연령차가 높을수록 결혼에 있어서의 안정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고 있다(Falk, 1975). 특히 배우자간의 나이차가 많을 때, 결혼전의 두 사람의 관계에도 적용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결혼 후의 결혼생활에서도 불안정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동질적인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하나의 규범으로 작용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Lewis & Spanier, 1979). 배우자 간의 나이차가 5년 이상일 때(Atkinson & Glass, 1985) 또는 6살 이상일 때를 배우자간의 차이가 이질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4) 배우자 선택의 위험 요인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 선택의 위험 요인은 나이, 결혼시의 학력, 혼전 임신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Levinger, 1976; Mueller & Pope, 1977). 결혼시의 연령은 결혼의 질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Bumpass & Sweet, 1972; Levinger, 1976). 어린 나이에 결혼한 사람들은 배우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혼의 질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Lee, 1977).

5) 결혼의 질이 결혼에 대한 책임감과 결혼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의 질은 결혼 행복도,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불일치, 그리고 결혼생활에 있어서의 문제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인 개념이다.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결혼의 질은 결혼 불안정성과 매우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Spanier, 1976; Dean &

Lucas, 1974),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높을 때 결혼의 질은 이혼의 가능성을 낮추는 매개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된다(Whit & Booth, 1991). 또한 결혼 만족도가 높고 배우자 간의 상호작용이 활발하며 결혼생활에서의 불일치가 높을 때 결혼에 대한 책임감은 더 강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Spanier, 1976).

6) 이혼방해 요인이 결혼에 대한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

이혼방해 요인은 결혼 자체와 자녀에 대한 의무감, 친척들이나 사회의 압력, 법적, 경제적 제한, 종교, 교회 참석여부 등으로 볼 수 있다(Levinger, 1965). 부부간의 애정이 많지 않을 때 조차도 친척과 친구들과의 관계망은 부부간의 관계를 안정시키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ott, 1977), 가족이나 친구로부터의 압력은 결혼에 대한 책임감을 예견하는 중요한 요소로 보고되어 진다(Lewis & Spanier, 1979).

7) 결혼에 대한 대안이 결혼에 대한 책임감에 미치는 영향

Edwards와 Saunders(1981)는 결혼에 대한 대안을 배우자 이외의 다른 상대의 가능성, 독신으로 살고 싶은 욕망, 경제적인 독립성 등으로 보고 있다. 그에 반해 Udry(1981)은 결혼에 대한 대안을 크게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번째는 현재의 배우자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수준의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며 두 번째는 현재의 경제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거나 더 나은 상태로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다. 선행 연구들은 일관되게 아내의 수입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 사이의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고하고 있다(Hannan, Tunam & Groeneveld, 1977; Ross & Sawhill, 1975). 여성들의 경제력은 불행한 결혼 생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혼에 대한 책임감은 관계에 대한 만족감과 결혼관계의 유지를 통해 얻는 보상, 그리고 결혼에 대한 대안이 없다고 인지할 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loyd & Wasner).

8)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결혼 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에 대한 책임감은 성에 상관이 없이 결혼 불안정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여진다. 결혼의 질과 결혼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나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나 이혼방해요인, 결혼에 대한 대안 같은 변수들이 매개변수로 작용을 하여 부부간의 결혼의 질이 높은 경우에도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결혼의 질이 낮은 경우에도 이혼을 하지 않고 계속 함께 살아가는 부부도 있다(Lewis & Spanier, 1979).

선행연구들은 일관되게 부모의 이혼,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 결혼의 질, 결혼에 대한 책임감, 결혼 불안정성 사이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하고 있으나, 이 같은 변인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지지 않았다. 때문에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은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 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밝히고, 자녀의 성별이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하는 것이다.

I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조사대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전 생애에 걸친 결혼 불안정의 연구를 위해 1980, 1983, 1988년에 전화 면접을 통해 University of Nebraska, Lincoln의 연구팀에 의해 수집된 것이다(Amato & Booth, 1991b).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세 차례의 조사에 다 참여한 조사대상자들 중 현재 부부가 함께 살고 있고, 친모나 친부 또는 친부모에 의해 양육되어진 816명이다. 조사 대상자들 중 316명(38.7%)은 남성이고 500명(61.3%)이 여성이다. 전체 816명중 39명의 남자와 58명의 여자가 18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이나 완전한 별거를 경험했으며, 여성 참가자의 평균나이는 37.45세 이고 남성참가자의 평균연령은 39.15세이다. 남성(20.61년)과 여성(20.53년)참가자들은 결혼기간이 비슷했다. 남성 참가자들의 21% 정도가 17년 이상

학교에 다닌 반면, 여성 참가자들의 9.8%만이 17년 이상 학교에 다닌 것으로 나타났다.

2. 조사도구

“부모의 이혼”은 조사대상자들의 부모의 이혼여부에 의해 측정되었고,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아버지의 학력과 어머니의 학력에 의해 측정되었다. “배우자간의 연령차”는 배우자간의 나이의 차이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이혼방해요인”은 Amato와 Booth(1991b)에 의해 개발된 marital bond항목 중 결혼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배우자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의존도, 종교적 믿음, 가족이나 친구들의 이혼에 대한 불허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묻는 3가지 항목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Chronbach's Alpha로 살펴본 신뢰도는 .50이었다. “부인의 경제적인 독립성”은 전체 가족의 수입 중 아내의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측정되었고, “대안적인 배우자”는 새로운 남편이나 아내를 찾는데 얼마나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 “배우자선택의 위험요인”은 조사대상자들의 초혼시의 연령, 조사대상자의 학력과 배우자의 학력의 세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의 질”은 부부관계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되어지며 11문항의 결혼행복도, 5문항의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4문항의 의견의 불일치와 13문항의 배우자간의 문제점의 4개의 하위도구에 의해 측정되었다. 신뢰도계수는 각각 .89, .63, .54, .76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의 질이 높음을 나타낸다. “결혼에 대한 책임감”은 조사대상자들의 이혼과 관련된 의견을 묻는 4개의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으며 높은 점수가 높은 책임감을 나타내고 신뢰도는 .51이었다. “결혼불안정성”은 인지적 측면과 행동적 측면 둘 다를 포함한 이혼에 대한 성향으로 정의되며 1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높은 점수는 높은 불안정을 나타내고, 신뢰도 계수는 .93이었다.

3.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LISREL VII을 사용하여 잠재변인과 측정변인의 관계를 성별에 따라 분석하고 변인들 간의 관계와 이론적 모델의 전체적인 적합성을 남성과 여성을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LISREL VII에서 모델의 적합성은 Chi-square의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모델의 적합성 지표인 GFI(Goodness of Fit Indices)와 모델에 있는 변인의 숫자를 고려한 AGFI(Adjusted Goodness of Fit Indices) 값이 0.9보다 높을 때 그 모델은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된다(Bollen, 1989).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는 경로의 통계적 의미는 t-테스트에 의해 결정되는데 t 값이 +1.96 보다 크면(일 경우 작으면) 그 경로는 통계적 의미를 갖게 된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이론적 모델의 적합성 검증 결과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한 첫 단계인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를 통한 측정모델의 결과는 <표 1>과 같다. 이혼방해요인의 측정변수중의 하나인 "가족의 이혼에 대한 불허"는 남성과 여성 둘 다에 잘 작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들의 경우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와 "초혼연령"이. 그리고 여성들은 "이혼을 해도 상관이 없다"와 "행복은 매우 중요하다"는 측정변인의 factor loading이 0.4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혼시의 연령은 남성보다는 여성 참가자의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을 설명하는데 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차이점은 아마도 36%의 여성 참가자들이 20세 이전에 결혼을 한 반면, 남성 참가자들은 20% 이하만이 20세 이전에 결혼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결혼의 질은 성별에 상관이 없이 유사한 factor loading을 나타냈다. <표 1>의 결과는 측정모델이 남성과 여성 둘 다에 대해 적합한 측정의 유사성을 나타냄을 보여주고 있다. 측정모델의 적

합성은 다양한 적합성지표에 의해 평가될 수 있는데, 먼저 Chi-Square 측정치가 남성의 경우 $\chi^2(165, n = 316) = 389.89, p < .001$, 여성의 경우 $\chi^2(165, n = 500) = 354.65, p < .001$ 로 그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GFI가 남성은 GFI = 0.896, 여성은 GFI = 0.937, AGFI가 남성은 AGFI = 0.855, 여성은 AGFI = 0.912이다. 자유도에 대한 χ^2 의 비율이 남성은 $\chi^2/df = 2.4:1$, 여성은 $\chi^2/df = 2.1:1$ 로 나타나 이론적인 모델이 남성보다는 여성에게 더 적합한 모델로 입증되었다. 그러나 남성의 경우도 Chi-Square가 유의미하며 GFI도 거의 0.9에 달하고 있어 이론적 모델이 남성의 경우에도 있어서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남성과 여성을 동시에 분석한 multi-group 분석도 Chi-Square 측정치가 $\chi^2(165, n = 816) = 753.54, p < .001$ 를 나타내고 있어 남성과 여성 둘다에 대해 이론적 모델이 적합한 모델임이 증명되었다.

2. 이론적 모델의 변인들 간의 관계 분석 결과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의 변인들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었다. 이 결과에서는 완전히 표준화된 계수(completely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를 제시하였으며, 괄호 안의 계수는 여성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이다. 완전히 표준화된 회귀계수는 측정변인과 잠재변인을 모두 표준화 시킨 것으로 각각의 계수의 t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면 *으로 표시하였다.

연구결과 자녀의 성별에 따라 결혼불안정성의 전이 과정에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결혼의 불안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똑 같은 조사대상자와 이론적 모델을 사용하여 남녀를 한 모델에 포함하여 실시한 이전의 연구결과와는 상반된 것이다(김은경 & Peter Martin, 1997) 그 이유는 남성과 여성을 분리함으로써 500명의 여성 중 58명(11.6%) 만이 그리고 316명의 남성 중 39명(12.3%) 만이 18세 이전에 부모의 이혼이나 완전한 별거를 경험했기 때문인 것으로,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조사대상자의 수가 적은 것이 통계에 있어서의

〈표 1〉 잠재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상관관계

	남성조사대상자(n=316)		여성조사대상자(n=500)	
	<i>f</i>	측정오류	<i>f</i>	측정오류
부모의 이혼				
부모의 이혼	1.000	0.000	1.000	0.000
부모의 사회적 지위				
아버지의 학력	0.894	0.201	0.696	0.515
어머니의 학력	0.670	0.552	0.711	0.495
배우자간의 연령차				
배우자간의 나이차	1.000	0.000	1.000*	0.000
이혼방해요인				
조사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의존도	0.359	0.871	0.467	0.782
종교적인 믿음	0.788	0.379	0.655	0.571
가족의 이혼에 대한 불허	0.316	0.900	0.345	0.881
부인의 경제적 독립성				
아내의 수입	1.000	0.000	1.000	0.000
대안적인 배우자				
다른 배우자를 찾을 가능성	1.000	0.000	1.000	0.000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				
초혼연령	0.249	0.938	0.494	0.756
조사대상자의 학력	0.843	0.290	0.897	0.196
배우자의 학력	0.665	0.557	0.595	0.647
결혼의 질				
결혼행복도	0.742	0.449	0.729	0.468
배우자간의 상호작용	0.490	0.760	0.490	0.760
의견의 불일치	0.611	0.627	0.681	0.536
배우자간의 문제점	0.627	0.607	0.755	0.429
결혼에 대한 책임감				
요즘 사람들은 이혼을 쉽게한다	0.468	0.781	0.512	0.737
이혼을 해도 상관이 없다	0.507	0.743	0.231	0.903
행복은 매우 중요하다	0.546	0.702	0.390	0.848
결혼은 영원하다	0.690	0.524	0.632	0.600
결혼불안정성				
결혼불안정성	1.000	0.000	1.000	0.000
χ^2	398.89(df=165)		354.65(df=165)	
Goodness of Fit Index	0.896		0.937	
Adjusted GFI	0.855		0.912	

분석의 힘을 약화시켜 따라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불안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 연구에 포함된 조사대상자가 현재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만으로 제한됨으로써 이미 이혼이나 별거를 하여 결혼관계를 끝내버린 사람들을 조사에 포함시키지 않아서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약화시킨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부모의 이혼이 결혼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여성의 경우는 부모의 이혼($\gamma = -0.102, p < .05$)은 결혼의 질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남성의 경우에는($\gamma = -0.041$) 결혼의 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어렸을 때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여성은 부모의 이혼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결혼에서의 역할을 덜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남성에게서는 이 같은 성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한 Kulka와 Weingarten(1979)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을 경험함으로써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결혼관계에 있어서의 문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보여져 딸의 경우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관점을 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이혼이 아들보다는 딸의 결혼관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이혼한 아버지와의 접촉빈도에 의해서 설명될 수 있다. 즉, Amato와 Booth(1991a)는 부모의 이혼 후에도 아버지와 그 이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한 자녀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결혼에 있어서의 행복감이나 배우자간의 상호작용이 더 높고 반면에 배우자간의 불일치가 낮다고 주장한다. 또 다른 선행연구는 함께 살지 않는 이혼한 아버지는 딸보다는 아들과 더 자주 접촉하고 또 금전적인 지원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mato & Keith, 1991).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와 그들의 함께 살지않은 이혼한 아버지와와의 접촉의 빈도를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로 이 설명을 직접적으로 증명할 방법은 없다. 그러

나 본 연구와 같은 데이터를 사용한 Amato와 Booth(1991b)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모의 이혼시 아들에 비해서 딸들이 아버지와 접촉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나 아버지와와의 적은 접촉빈도가 딸들의 결혼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간접적으로 증명된다고 하겠다.

결혼의 질(남성은 $\beta = -0.387, p < .001$, 여성은 $\beta = -0.470, p < .001$)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남성은 $\beta = -0.137, p < .05$, 여성은 $\beta = -0.231, p < .01$)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의 불안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에 상관없이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성별에 상관없이 조사대상자의 배우자 선택의 위험요인(남성의 경우 $\gamma = -0.492, p < .001$, 여성은 $\gamma = -0.572, p < .001$)에 매우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즉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자녀는 어린 나이에 그리고 교육정도가 낮은 상태에서 결혼하거나, 교육정도가 낮은 배우자와 결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는 자녀의 교육수준과 결혼연령에 영향을 미친다는 Keith와 Finlay(1988)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사항은 부모의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배우자간의 연령차(남성은 $\gamma = 0.00$, 여성은 $\gamma = -0.2, p < .001$), 즉 배우자간의 나이차는 여성들의 결혼의 질에 강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반면, 남성들의 결혼의 질과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경우 나이 차이가 많은 연상의 배우자와 생활하는 것이 비슷한 나이의 배우자와 생활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하겠다. 나이가 많은 남편과 산다는 것은 부부관계에 있어서의 불평등성을 의미하며 나이가 많은 배우자와 사는 여성들은 나이차로 인해 상대적인 지위의 이점을 가진 남편에 비해 불리한 처지에 있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Sabatelli & Cecil-Pigo, 1985).

이혼방해요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의 결혼에 대한 책임감(남성은 $\gamma = 0.610$, $p < .001$, 여성은 $\gamma = 0.536$, $p < .001$)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결혼해체에 대한 방해 요인이 많은 사람일수록 결혼에 대해 높은 책임감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인의 경제적인 독립성과 대안적인 배우자는 자녀의 결혼에 대한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아내의 수입과 결혼에 대한 책임감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보고한 선행연구(Hanan, Tunam, & Groeneveld, 1977; Ross & Sawhill, 1975)와는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결혼불안정성의 인과관계 모델은 성별에 상관없이 데이터를 잘 설명하지만 남성보다는 여성들의 경우,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과정을 더 잘 설명하는 모델임을 알 수 있다.

V. 결 론

본 연구의 목적은 자녀의 성별이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전이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중요한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이 연구의 이론적 모델은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 세대간의 결혼불안정성의 전이를 더 잘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변인들 간의 관계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남성과 여성의 결혼불안정성의 전이과정이 같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부모의 이혼은 자녀의 결혼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의 질을 통한 간접적인 영향이 나타나 부모의 이혼이 아들보다는 딸들의 결혼관계에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이 드러났다. 셋째, 성별에 상관없이 결혼 전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경우, 배우자 선택의 위험성이 높았다. 넷째, 배우자간의 연령차이는 여성의 결혼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남성의 결혼의 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별에 상관없이 결혼의 질이 높을수록 그리고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높을수록 결혼불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혼에 대한 방해요인이 많을수록 결혼에 대한 책임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부인의 경제적 독립성과 대안적인 배우자는 남녀 모두 결혼에 대한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어린시절 부모의 이혼이 성장한 자녀의 결혼불안정을 증가시킨다는 세대간의 전이(Meyer, 1988) 관점을 부분적으로만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딸의 결혼의 질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의 해석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설명했듯이, 본 연구의 결과는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불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연구참여자 중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의 수가 적어 통계의 힘이 약화되어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불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 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어 질 수 있다.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한 사람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적절한 비율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교환이론 또한 부분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녀에 상관없이 결혼의 질은 결혼불안정성, 이혼방해요인은 결혼에 대한 책임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반면, 부인의 경제적 독립성과 대안적인 배우자는 결혼에 대한 책임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인 독립성이나 대안적인 배우자가 아닌 다른 요인들이 결혼에 대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결혼에 대한 대안을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요인들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은 조사대상자의 수(N=816)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자 중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를 경험한 사람이 남성의 12.3%, 그리고 여성의 11.6%에 불과해 통계의 힘을 약화시켜 부모의 이혼이 자녀들의 결혼불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과소평가되었을 수가 있다는데 있다. 또한 현재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만을 조사대상으로 포함 시킨 것 또한 부모의 이혼이 자녀의 결혼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한 결과를 초래했을 수도 있다.

【참 고 문 헌】

- 김은경, Martin, P.(1997). 결혼불안정성의 세대간의 직, 간접적인 전이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 191-200.
- Amato, P. R., & Booth, A.(1991a). The consequences of divorce for attitudes toward divorce and gender roles. *Journal of Family Issues* 12, 306-322.
- Amato, P. R., & Booth, A.(1991b). Consequences of parental divorce and marital unhappiness for adult well-being. *Social Forces* 69, 895-914.
- Amato, P. R., & Keith, B.(1991). Parental divorce and adult well-being: A meta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43-58.
- Barber, B. L., & Eccles, J.(1992). Influence of divorce and single parenting on adolescent family-and work-related values, behaviors, and aspirations. *Psychological Bulletin* 111, 108-120.
- Bollen, K. A.(1989). *Structural equations with latent variables*.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 Demo, D. H., & Acock, A. C.(1988). The impact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619-648.
- Edwards, J. N., & Saunders, J. M.(1981). Coming apart: A model of the marital dissolution deci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379-389.
- Floyd, F. J., & Wasner, G. H.(1994). Social exchange, equity, and commit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dating relationship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55-73.
- Glenn, N. D., & Kramer, K. B.(1987). The marriage and divorces of the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811-825.
- Glenn, N., & Shelton, B. A.(1983). Pre-adult background variables and divorce: A note of caution about overreliance on explained vari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405-410.
- Keith, V. M., & Finlay, B.(1988). The impact of parental divorce on children's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timing, and likelihood of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97-809.
- Kim, E. K.(1994). *The examination of Direct and Indirect Transmission Processes of Intergenerational Marital Instability*. Iowa State University. Ph. D. Dissertation.
- Kudek, L. A.(1993). Issues in proposing a general model of the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5, 39-41.
- Kulka, R. A., & Weingarten, H.(1979). The long-term effects of parental divorce in childhood on adult adjustment. *Journal of Social Issues* 35, 50-77.
- Kunz, J.(1991). The effects of divorce on children. In S. J. Bahr (Ed.), *Family Research* (Vol. 2). New York: Lexington Books.
- Levinger, G.(1976).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arital dissolu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32, 21-47.
- Lewis, R. A., & Spanier, G. B.(1982).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In W. R. Burr, R. Hill, F. I. Nye, &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Vol. 1). New York: The Free Press.
- Meyer, H. J.(1988). Marital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Developmental history, parent personality, and child difficultness. In R. A. Hinde & J. Stevenson-Hinde (Eds.), *Relationships within families*. Oxford: Chredon Press.
- Mueller, C. W., & Pope, H.(1977). Marital Instability: A study of its transmission between gener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39, 83-92.
- Norton, A. J., & Mooreman, J. E.(1987). Current trends in American marriage and divorc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3-14.
- Pope, H., & Mueller, C. W.(1976). The intergenera-

- 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instability: Comparison by race and sex. *Journal of Social Issues* 32, 49-66.
- Ross, H. L., & Sawhill, I. V.(1975). Time of transition: The growth of families headed by women. Washington, D. C.: The Urban Institute.
- Rubin, L. B.(1976). *Worlds of pain: Life in the working-class family*. New York: Basic.
- Sabatelli, R. M., & Cecil-Pigo, E. F.(1985). Relational interdependence and commitment in marriag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931-937.
- Zaslow, M. J.(1989).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response to parental divorce: 2. Samples, variables, ages, and sources. *Journal of American Orthopsychiatry* 59, 118-141.